R&D팀

2021년 1월 MICE 산업 동향

2021. 2.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목 차

1. 싱가포르 디지털화 기업 지원 프로그램 ····· 3

2. 해외시장 동향 ····· 12

3. 국내시장 동향 ····· 18

1. 싱가포르 디지털화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가. 관광 · MICE 관련 교부금 지원 프로그램

1) 싱가포르 관광청(STB)

▌ 경험 향상 기금(Experience Step-Up Fund, ESF)[1)]

- 경험 향상 기금(Experience Step-Up Fund, ESF)은 방문객들에게 싱가포르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 경험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을 지원하여,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방문객 경험과 만족도를 개선함
- 본 기금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기업체와 회사, 협회,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제안된 프로젝트는 '신제품과 경험 개발, 기존 관광지와 지역에서 콘텐츠 향상, 기술 실현 요소, 소매점 및 관광지 내에서의 어메니티 향상, 인프라 강화'에 해당해야 함
- 선발된 신청자는 프로젝트 범위 및 강점에 대한 싱가포르 관광청의 평가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지원금으로 받게 됨
  - 산출 비용에는 전문 서비스, 하드웨어 ·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자재 및 소모재, 생산 또는 마케팅 비용 등 프로젝트 관련 비용과 내부 인건비(관광 개발 프로젝트 한정)가 포함될 수 있음
  - 신제품 또는 기념품 제작 등 새로운 패키지 생산 비용의 경우 기금 지원은 1차 생산에만 적용됨
  - 해외 홍보 및 배포를 위한 미디어(출력물, 디지털 및 비디오) 마케팅 비용의 경우, 기금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적용됨

▌ 기업 개선 기금(Business Improvement Fund, BIF)[2)]

- 기업 개선 기금(Business Improvement Fund, BIF)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광 부문에서 기술 혁신, 그리고 사업 모델 및 프로세스의 도입과 재설계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 자료 출처(https://www.stb.gov.sg/content/stb/en/assistance-and-licensing/grants-overview/experience-step-up-fund-esf.html)
2) 자료 출처(https://www.stb.gov.sg/content/stb/en/assistance-and-licensing/grants-overview/business-improvement-fund-bif.html)

- 관광 부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모든 기업에 열려 있음
  - 역량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기업, 관광산업을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 전략 개발, 재무 관리, 인적 자원 개발, 서비스 우수성 개발, 전략적 브랜드와 마케팅 개발' 등 관광사업 기반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대한 준비를 지원함
  - '자동화, 프로세스 재설계, 제품 개발' 등 혁신 및 생산성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기업이 업무 흐름과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검토 및 재설계 과정을 지원함
- 기금 지원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차등이 있으며, 선발된 신청자는 프로젝트 범위 및 강점에 대한 싱가포르 관광청(STB)의 평가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지원금으로 받게 됨
- 싱가포르인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로 최소 30%의 현지 주식 보유하거나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1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38억 원)를 넘지 않거나 기업의 고용 규모가 200명 이하의 경우 지원이 가능함

▌비즈니스 이벤트 인 싱가포르(Business Events in Singapore, BEiS)[3)]

- 비즈니스 이벤트 인 싱가포르(Business Events in Singapore, BEiS)제도는 비즈니스 이벤트 업계가 양질의 이벤트를 정착 및 성장시키고, 새로운 콘텐츠 혁신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활동을 지원함
  - 비즈니스 이벤트 인 싱가포르(BEiS)는 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 분야와 연관된 모든 사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함
- 기금 지원은 신청한 프로젝트의 범위와 프로젝트의 강점에 대한 싱가포르 전시컨벤션 사무국(SECB)의 평가에 따라서 서드파티(Third Party) 비용에 대한 기금 지원을 받음
  - 서드파티(Third Party)는 다른 회사 제품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 비즈니스 이벤트 인 싱가포르(BEiS)는 서드파티 전문 서비스, 콘텐츠 개발, 마케팅, 입찰 등을 서드파티 비용에 대한 지원을 말함
  - 또한, 기금 지원은 프로젝트의 범위 및 강점에 대한 싱가포르 관광청(STB)의 평가를 기반으로 정해짐

3) 자료 출처(https://www.stb.gov.sg/content/stb/en/assistance-and-licensing/grants-overview/business-events-in-singapore-beis.html)

▌ 킥스타트 기금(Kickstart Fund, KF)[4]

- 킥스타트 기금(Kickstart Fund, KF)은 강력한 관광업 잠재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이벤트 기획을 지원하여 기존에 있는 양질의 관광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관광지로서 싱가포르의 활기를 높이고자 함
  - 킥스타트 기금(Kickstart Fund, KF)은 사업체, 기업, 협회, 기관 등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함
- 킥스타트 기금에 적합한 프로젝트로는 고객 중심의 이벤트 및 컨셉임
  - (예시1)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또는 사업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제, 하이브리드 이벤트
  - (예시2) 대규모 이벤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식 투어, 예술 투어 등 1회 혹은 다회성의 팝업 이벤트 및 서비스임
- 기금 지원은 최대 2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억 6,765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된 비용으로 전문 서비스, 장비 및 소재, 생산 및 마케팅 비용, 내부 인력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레저 이벤트 기금(Leisure Events Fund, LEF)[5]

- 레저 이벤트 기금(Leisure Events Fund, LEF)은 세계적인 수준의 차별화된 레저 이벤트 경험을 싱가포르 내에서 창출하여 싱가포르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레저 이벤트 기금(Leisure Events Fund, LEF)은 사업체, 기업, 협회, 정부 기관 등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함
- 본 기금에 적합한 이벤트는 관광 잠재성이 있는 라이브 소비자 이벤트 경험 및 컨셉이 포함된 프로젝트임
- 기금 지원은 프로젝트의 범위과 관광 관련 강점에 대한 싱가포르 관광청(STB)의 평가를 기준으로 서드파티(Third Party) 관련 비용에 해당함
  - 서드파티(Third Party)는 다른 회사 제품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를 말함

4) 자료 출처(https://www.stb.gov.sg/content/stb/en/assistance-and-licensing/grants-overview/kickstart-fund-kf.html)
5) 자료 출처(https://www.stb.gov.sg/content/stb/en/assistance-and-licensing/grants-overview/leisure-events-fund-lef.html)

2) 싱가포르 기업청

▌ 기업 개발 교부금(Enterprise Development Grant, EDG)[6]

- 기업 개발 교부금(Enterprise Development Grant, EDG)는 '핵심역량, 혁신 및 생산성, 시장 접근' 등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핵심역량) 본 교부금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영업 및 회계와 같은 기본 기능에 혁신을 더하여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 및 변화를 준비하기 위함
  - (혁신 및 생산성) 상업화를 최종 목표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함
  - (시장 접근) 해외 진출 의사가 있거나 준비가 된 싱가포르 업체들의 일부 비용을 지원함
-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80% 지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최대 60% 지원함

▌ 리드 국제 박람회 및 파견단(LEAD International Fairs & Missions, LEAD IFM)[7]

- 해외 무역 박람회는 싱가포르 기업들이 국제 고객을 접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얻으며 해외시장의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임
  -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Trade Associations and Chambers, TACs)는 해외 파견단을 조직하고 현지 기업의 해외 무역 박람회 참석을 촉진 시킴
-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TACs)는 리드 국제 박람회 및 파견단(LEAD IF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이 해외 파견단 및 무역 박람회 참가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리드 국제 박람회 및 파견단(LEAD IFM)에서 승인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횟수에 따라 최대 50%에서 70%의 적격 비용을 지원함
  - 적격 비용은 전시 공간 대여, 부스 설치, 홍보 및 박람회 또는 파견 컨설팅 비용 등

▌ 시장 준비 보조 교부금(Market Readiness Assistance, MRA)[8]

- 시장 준비 보조 교부금(Market Readiness Assistance, MRA)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사업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음

6) 자료 출처(https://www.enterprisesg.gov.sg/financial-assistance/grants/for-local-companies/enterprise-development-grant/innovation-and-productivity)
7) 자료 출처(https://www.enterprisesg.gov.sg/financial-assistance/grants/for-partners/local-enterprise-and-association-development-programme/lead-international-fairs-and-missions)
8) 자료 출처(https://www.enterprisesg.gov.sg/financial-assistance/grants/for-local-companies/market-readiness-assistance-grant)

- 지원 대상은 리드 국제 박람회 및 파견단(LEAD International Fairs & Missions)에서 지원하지 않는 해외 무역 박람회 참여 시 해당 됨

-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규 시장별 기업별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400만 원)까지 적격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1)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MDA)

▌산업 디지털 계획(Industry Digital Plans, IDP)

- 2017년 4월 출범한 싱가포르 정보 통신 미디어 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은 '중소기업 디지털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음

- 분야별 산업 디지털 계획(IDP)은 중소기업의 각기 다른 성장단계에 맞추어 도입할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와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

  - 2020년 12월 말 기준, 소매, 항공·교통 등 물류, 환경 서비스, 보안, 식품 서비스, 도매업, 미디어, 해상운수(연료공급, 선박, 선박 대리업), 회계, 호텔, 건설 및 설비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산업 디지털 계획(IDP)을 발표함

- 산업 디지털 계획(IDP)에서 권고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MDA)은 시장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비용이 효율적인지, 신뢰할만한 벤더가 지원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전에 승인한 솔루션의 목록을 제공함

- 이러한 솔루션 도입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 교부금 포털(Business Grants Portal)을 통해 생산선 솔루션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생산성 솔루션 교부금(Productivity Solutions Grant, PSG)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사전에 승인된 IT 솔루션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생산성 솔루션 교부금(PSG)은 기업의 솔루션 도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함

▌ 스타트 디지털(Start Digital)

-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MDA)은 싱가포르 기업청과 함께 2019년 1월 스타트 디지털(Start Digital) 사업을 발족하였음

- 스타트 디지털(Start Digital)은 신생 중소기업과 아직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을 지원하여 은행이나 이동통신사 등 중소기업에게 익숙한 접점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디지털 솔루션은 스타트 디지털 팩(Start Digital Pack)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회계, 인적자원 관리체계(HRMs) 및 급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거래, 사이버 보안 등 5가지 항목 중 선택할 수 있음

  - 스타트 디지털팩은 은행과 이동통신사 파트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최소 18개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비용을 면제 받음

▌ 그로우 디지털(Grow Digital)

- 2020년 6월에 시작된 그로우 디지털(Grow Digital)은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MDA)과 싱가포르 기업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사업임

- 중소기업이 물리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지 않고도 B2B(Business-to-Business), B2C(Business-to-Consumer)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참여하여 해외 판매가 가능함

-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MDA)은 싱가포르 기업청이 사전 승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물류 및 금융 등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강력한 네트워크, 사업 실적, 다양한 해외시장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됨

- 중소기업은 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스마트 매칭을 통한 해외 잠재 고객과의 연결
  -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되어 등록
  - 플랫폼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신속하게 접근하는데 용이
  - 환율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하는 국경 간 전자결제수단 활용
  - 라스트 마일 배송(Last-mile delivery[9])) 활성화를 위한 물류업체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역량 강화 트레이닝 및 지원

9) 라스트 마일 배송(Last-mile delivery): 유통업체의 택배 상품이 목적지에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요소를 뜻하는 개념으로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속도보다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확장된 배송

▌ 디지털 회복 보너스(Digital Resilience Bonus, DRB)

- 디지털 회복 보너스(DRB)는 다양한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됨
- 특히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경제 재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식품 서비스 및 소매 부문에 해당됨
-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26일 또는 이전에 설립하였으며, 2021년 6월 31일까지 사전에 페이나우(PayNow Corporate)와 인보이스나우(InvoiceNow)를 도입하고, 지정된 항목(표1)의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한 식품 서비스 및 소매업체임
  - 항목 1, 2에 대한 지원금은 항목당 2,500달러(한화 약 277만 원)이며, 항목 3에 대한 지원금은 5,000달러(한화 약 553만 원)임
  -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음

<표 1> 디지털 회복 보너스 지원 대상 자격 요건(디지털 솔루션 도입 여부)

대상	구분	디지털 솔루션 도입 항목
식음료 서비스	공통사항	- 페이나우(PayNow Corporate)와 인보이스나우(InvoiceNow)에 추가하여 도입할 솔루션
	항목1	- 회계, 인사/급여, 디지털 주문(매장 내 취식/포장)
	항목2	- 식품 배달 플랫폼 혹은 자체 온라인 상점을 통한 온라인 식품 배달 또는 전자 구매
	항목3	- 데이터 마이닝 및 애널리틱스
소매업체	공통사항	- 페이나우(PayNow Corporate)와 인보이스나우(InvoiceNow)에 추가하여 도입할 솔루션
	항목1	- 회계, 인사/급여, 재고관리
	항목2	- 전자상거래
	항목3	- 데이터 마이닝 및 애널리틱스

▌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 허브(SME Digital Tech Hub)

-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 허브(SME Digital Tech Hub)는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MDA)이 설립하고, 싱가포르 중소기업협회(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ME)가 운영함
- 데이터 애널리틱스,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및 사물 인터넷 등 전문화된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컨설팅을 제공함
  - 무료 컨설팅 제공과 함께 적합한 정보통신기술 벤더사 및 컨설턴트를 추천함

[그림 1]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세스

2)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10]

▌기술 역량 개발을 위한 기술(Technology for Enterprise Capability Upgrading, T-Up)

- 기술 역량 개발을 위한 기술(Technology for Enterprise Capability Upgrading, T-Up)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혁신적인 프로세스로 R&D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최대 2년간 파견하여 제품 개발 전략 및 사업 프로세스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함

  - 기술 역량 개발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T-Up)은 파견 비용의 최대 70%를 보조함

▌운영 및 기술 로드맵 구축(Operation & Technology Roadmapping, OTR)

- 운영 및 기술 로드맵 구축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사업 전략과 목표에 맞추어 기술 로드맵을 개발하는 지원 프로그램임

  - 중소기업들이 시장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유용한 기술과 자원을 더 잘 분배할 수 있는 운영 및 기술계획 개발, 신기술에 분배된 자원이 사업적 목표 부합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로드맵 개발 지원

- 운영 및 기술 로드맵 구축 비용은 25,000달러(한화 약 2,760만 원) 지원 가능

10) 자료 출처(https://www.a-star.edu.sg/Collaborate/Programmes-for-SMEs/Technology-for-Enterprise-Capability-Upgrading)

[그림 2] 싱가포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안내 브로셔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싱가포르: 2021년, 가상·대면 행사 지지 및 예방접종 후 행사 개최 가능성 염두

- 싱가포르의 컨퍼런스 전시 경영 서비스사(Singapore-based Conference & Exhibition Management Services, CEMS)는 샌즈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가상 및 대면 행사 개최 지지율이 70%에 달한다고 밝힘

- 행사 조직위원회 디렉터인 에드워드 리우(Edward Liu)는 2021년 하반기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2020년에 비해 다양한 MICE 행사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힘

- 이러한 이유로, 2021년 행사 개최는 2020년 하반기에 비해 잠재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행사 주최자측은 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준비를 마침

- 싱가포르는 현재 2021년 2~3분기에 대규모 MICE 행사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나 인원 제한 규제로 인해 행사장의 70% 규모의 인원만 수용하며, 온라인 스트리밍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행사로 개최할 예정임

  - 싱가포르는 현재 2021년 5월 25일~28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1), 7월 8일~11일 국제장신구박람회(Singapore International Jewellery Expo) 등이 개최될 예정임

[그림 3] (좌) 세계경제포럼, (우) 2021 국제장신구박람회 포스터

▌ 홍콩: 2021년 1분기,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MICE 국제 행사 개최 예정

- 홍콩무역개발위원회(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HKTDC)는 2021년 1분기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MICE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 홍콩무역개발위원회는 업계 무역 박람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팬대믹으로 위축되었던 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홍콩무역개발위원회는 하이브리드 박람회 외에도 지역 전시와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바이어간의 네트워킹을 도울 예정임
  - 홍콩무역개발위원회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가구페어, 패션위크, 토이앤게임 페어 등을 개최할 예정임

- 이 밖에 2021년 1월~3월까지 아시아 라이센싱 컨퍼런스(Asian Licensing Conference), 아시아 파이낸셜포럼(Asian Financial Forum), 국제영화&TV 마켓(International Film & TV Market) 등의 온라인 국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 두바이: 에미레이트 항공과 국제항공운송협회 파트너십 체결 후 디지털 여권 도입

- 에미레이트 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디지털 여권인 IATA 트레블 패스를 도입함

- IATA 트레블 패스는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은 여행 전 코로나19 테스트 또는 백신 접종 등 여행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대한 정보,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와 백신 접종센터의 위치 정보, 테스트 결과와 접종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한 모바일 앱임

- 국제항공운송협회 부사장인 닉 카렌(Nick Careen)은 트레블 패스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경이 다시 개방되면 트레블 패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말레이시아: 대형 컨벤션센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센터로 공간 활용

- 말레이시아 컨벤션 기획자 및 공급업체 협회(The Malaysian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Organisers and Suppliers, MACEOS)와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전시센터(Malaysia International Trade and Exhibition Centre, MITEC),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uala Lumpur Convention Centre) 등과 같은 MICE 관련 업계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컨벤션센터를 예방접종 장소로 사용할 아이디어를 제안함
  - 말레이시아는 12월경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해 5억7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2월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임
-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전시센터의 마케팅 영업 디렉터인 말라 도라사미(Mala Dorasamy)는 컨벤션센터의 컨벤션 홀은 대기 장소와 예방접종 구역과 같이 사용 목적에 따라 세션 구분이 가능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센터로 운영이 용이하며, 공공 의료 시설을 예방접종 센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힘
- 또한,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의 앨런 프라이어(Alan Pryor)는 이러한 장소 활용 아이디어는 컨벤션센터가 행사 장소 제공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역할을 넘어 도시와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힘

[그림 4]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전시센터 전경

나. 미주 지역

▌ 미주: 미국 대형 컨벤션센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활용 계획 발표

- 미국 전역의 대형 컨벤션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활용률이 저조해졌던 전시관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로 전환하여 이용하기로 했으며, 보건당국은 앞으로 더 많은 컨벤션센터를 백신 접종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힘

- 1월 13일, 맨해튼에 위치한 제이콥 K. 자비츠 센터(Jacob K. Javits Center)는 뉴욕에서 가장 큰 백신 접종센터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 접종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함

- 1월 19일, 위스콘신 센터(Wisconsin Center)는 밀워키(Milwaukee)의 메인 백신 접종 센터가 되어, 현재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으며, 의료인들의 접종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관, 소방인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임

  - 위슨콘신 센터는 올해 5월까지 시와 계약을 맺고, 백신 접종센터로 사용될 예정임

- 위스콘신 센터 대표인 말티 브룩스(Marty Brooks)는 컨벤션센터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본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로 사용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 밝힘

[그림 5] 컨벤션센터를 활용한 백신 접종센터

다. 구미주 지역

▌ 영국: 디지털 패스 'CommonPass' 파일럿 테스트 시행

- 런던의 글로벌데이터(GlobalData)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 여행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인증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패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여행자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고 관광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힘
  - 앞서 싱가포르는 2020년 5월 코로나19 건강증명서의 파일럿 버전인 ICC AOKpass를 싱가포르를 찾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여행객에게 배포하고, 관광 시설 이용 시 제시하도록 했으며, 뉴욕과 런던에서는 ICC AOKpass와 유사한 형태의 CommonPass의 파일럿 테스트가 이루어짐
- 또한, 디지털 패스는 QR코드,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페이퍼 인증서가 발급 및 인증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일 수 있으며, 테스트 결과 위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글로벌데이터의 컨설팅 디렉터인 아니메시 쿠마르(Animesh Kumar)는 디지털 패스는 앱의 효율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콘서트나 경기장 입장, 국내 여행 등에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그림 6] CommonPass 앱 화면

▌ 이탈리아: UFI, 코로나19가 세계 전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 국제전시연맹(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 UFI)은 코로나19가 2020년 세계 전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세계 전시산업의 절반 이상이 전시회를 비롯한 행사 개최를 하지 못했으며, 9월부터 일부 행사가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개최 건수에 불과함

- 대륙별 전시업계가 행사 운영 중지를 선언한 시기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3~6월, 북미 지역 4~6월, 중동 아프리카 지역 4~9월에 전시회가 전무 했음

- 많은 전시산업 관계자 중 2021년에 'Normal'로 산업이 복귀될 것으로 기대하는 비중이 1월 10%에서 6월 37%로 늘어남

  - 2021년 6월 말이면 지역 전시회와 국가 규모의 전시회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100%의 대면 전시회는 불가능하나, 미팅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방식으로 재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함

  - 전시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시회를 복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질문에서 64%는 전시회 기업과 관람객들을 위한 준비, 63%는 현행 중인 여행 제한 및 정부의 정책 해제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음

▌ 호주: 맬버른 컨벤션센터, 수용인원 75%까지 행사 인원 규모 확대

- 맬버른 컨벤션전시센터(Melbourne Convention&Exhibition Centre, MCEC)는 최근 빅토리아 주 정부의 승인에 따라 행사 수용인원을 75%, 최대 5,000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주 정부는 행사 개최에 대한 세부 조건으로 행사 참석자의 연락처 추적, 식음료 서비스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으며, 필요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행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맬버른 컨벤션전시 센터 CEO인 피터 킹(Peter King)은 맬버른 컨벤션전시센터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받기 위해 방역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강조함

3. 국내시장 동향

▌ 경기도: 고양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과 MICE 산업 인프라로 글로벌 스포츠산업도시 도약 계획

- 2020년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단체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가 고양시로 이전을 확정했으며, 고양시는 일산 킨텍스 등 MICE 산업 인프라와 접목해 '글로벌 스포츠산업도시'로 도약할 계획임

- 고양시는 현재 올해 태권도산업박람회 개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태권도와 관광을 연계시켜 매력적인 볼거리로 태권도 붐을 일으켜 세계 태권도 애호인을 고양시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음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제3 킨텍스 인근에 건축면적 4만7,060㎡의 10층 규모로 본부 건물에는 사무 공간과 역사관, 훈련장, 편의시설 등이 포함되며 2023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예정임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으로 정기 국제 집행위원회와 총회와 태권도 관련 교육, 컨퍼런스, 태권도 대회, 박람회 등이 개최되어 도시의 위상과 1,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900억 원가량의 경제 효과가 창출됨에 따라 고양시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7]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조감도

▌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인근,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재추진

-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인근에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으며, 총 사업비로 1,816억 원이 들것으로 추산함

- 1월 7일, 강원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8년 MICE 산업통계조사 연구 자료를 제출했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MICE 개최 순위가 전국 4위로 총 10,731건의 실적을 갖고 있으며, 참가자 수는 205만 4,000명으로 전국 5위에 해당함

  - 이러한 실적은 국제컨벤션센터가 있는 충청북도의 MICE 개최 건수 4,344건과 충청남도 9,607건과 비교했을 때 최대 3배 이상 높은 수치임

- 따라서, 강원도는 국제컨벤션센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MICE 산업 수요가 충분하며,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갖는 것이라 밝힘

[그림 8] 강원도 국제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예정지인 춘천 하중도 레고랜드 사업 부지

▌ 전라북도: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 등 건립 행정절차 착수

- 전주시는 1963년 건립한 전주종합경기장(12만 715㎡)이 시설 노후 및 관리 부실로 기능을 상실하자 2005년부터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월 28일, 경기장 부지에 공원, 컨벤션센터,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사업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5년 말 건립 목표를 갖고 있음
-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은 전주시가 2019년 '정원·예술·놀이·미식·MICE' 등 5가지 주제로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의 숲 1963' 첫 번째 사업으로, 롯데쇼핑이 MICE 숲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25,000㎡)와 호텔(200실 이상)을 지어주고, 그 대가로 종합경기장 일부 부지를 임차해 백화점(23,000㎡)을 건립할 계획이며, 시설 건립에는 총 3,975억 원이 소요될 전망임
- 전주시는 컨벤션센터 등 건립을 통해 지역 MICE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과 전주국제영화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그간 마땅한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대형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전라북도: 전주, 2021년 6월까지 국내·외 행사 개최 시 인센티브 지원 기준 완화**

- 1월 18일, 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체, 법인, 기관 등이 국내·외 행사 전시와 회의를 유치할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힘
  - 이는 코로나19로 다수의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MICE 행사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지원기준을 완화해 MICE 산업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
- 지원 대상은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컨퍼런스, 박람회 등을 주최 및 주관하는 단체, 기관, 대행사, 여행사 등으로 국내 행사 지원 조건은 도민을 제외한 30명 이상이 2일 이상 참가해야 하며,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2개국 이상, 외국인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총 30명 이상이 참가해야 함
- 시는 행사 규모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심사를 거쳐 국내 행사에는 최대 2,000만 원, 국제행사는 2,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임

▌부산: 벡스코, 2021년 MICE 정상화 전략으로 지역특화행사 및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목표

- 부산 벡스코는 1월 25일 MICE 산업의 '뉴노멀' 전환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2021년 경영 전략을 발표함

- 2020년 벡스코에서는 650여 건의 행사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예정된 지역 특화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임

  - 2021년 상반기 국제해양 방위산업전과 국제 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Marine Week), 드론쇼코리아 등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전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증강현실 등 최신 기술을 다루는 AI 코리아 행사, 부산국제철도산업기술전 등을 개최할 예정임

- 부산은 올해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로 2021 국제간외과학회 심포지엄(7개국 800명), 아시아태평양면역학회(10개국 1,500명), 제8차 국제세라믹총회(15개국 1,100명) 등이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벡스코는 화상 상담, 영상 촬영 및 화상회의 송출 시스템을 갖춘 MICE 화상 상담장 및 스튜디오를 2020년 말 오픈했으며, 제2 전시장 옆 올림픽 동산 23,000㎡에 약 70,000㎡의 전시공간을 제3전시장으로 건립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그림 9] (좌) 국제간외과학회 심포지엄 포스터, (우) 국제 항만 · 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 포스터

▌ 제주도: MICE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발표 및 아시아 최고 MICE 목적지 선정

-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MICE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 3대 전략·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총 1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 지속 가능한 MICE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3대 전략은 MICE 업계 지원강화, 스마트·안전 환경조성, MICE 경쟁력 강화임
  - MICE 업계 지원강화를 위한 과제로 MICE 환경 변화에 따른 IT 기술 지원, MICE 특화 상품 발굴, 2020년 선정된 제주 유니크베뉴 마케팅 지원, 전시 및 특화 컨벤션 행사 발굴이 있음
  - 스마트·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지원, 스마트 MICE 베뉴 구축 등 컨벤션센터의 시설개선, MICE 데이터 고도화,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환경조성 등도 추진하게 됨
- 한편, 제주도는 2020년 국내·외 마이스 행사 94건을 유치했으며, 국제적인 마이스 여행 전문지인 '비지니스 데스티네이션스(Business Destinations)'로부터 '아시아 최고 MICE 목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둠